

Print ISSN: 2233-4165 / Online ISSN: 2233-5382  
doi:http://dx.doi.org/10.13106/ijidb.2018.vol9.no1.89.

# A Study on the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RCEP Participating Countries\*

## 한국과 RCEP 참여국가와의 무역구조에 관한 연구

Min-Soo Kim (김민수)\*\*

Received: December 14, 2017. Revised: December 26, 2017. Accepted: January 15, 2018.

### Abstract

**Purpose** -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mong 16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will be concluded next year. The participating countries decided to pursue a comprehensive and high-quality agreement, while ensuring flexibility considering development level of each country. In this study, trade structures between nations from 2005 through 2016 were examined to see the impact that this agreement will have on Korea and to come up with effective countermeasur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ethod of analysis includes the analysis of the trade matrix, which is useful for identifying the dependency of the individual countries on the market in the region and the reciprocal dependency of the member countries on the market, and the index of intensity of trade, which is useful for figuring out the share of trade between the parties in total trade.

**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international trade coefficients of Vietnam and Philippines are higher than those of China and Japan. Secondly, the international inducement coefficients between China and Japan were high, and that between Indonesia and Burma were low, indicating that Korea's exports did not have much effect on export increase of these countri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Korea's trade intensity, it was found that export intensity and import intensity were greater than 1 in Vietnam and Philippines, which shows that there is a high degree of relational bond with these countries. India and Laos countries still have a low level of relational bond, which indicates that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economic relations when the agreement is concluded. After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in the future, more diverse industrial structures should be continuously studied.

**Conclusions** - The analysis of trade matrix, trade structure, trade inducement coefficient and trade intensity between Korea and RCEP participating countries shows that the majority of the countries have the high level of economic relationship with Korea. Korea should drive a harder bargain when negotiating the terms of the RCEP, in comparison with the level of the existing FTA agreement excluding Japan.

**Keywords:** RCEP, Trade Structure, International Trade Matrix.

**JEL Classifications:** F13, F15, F52.

### 1. 서론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강력한 규제와 리더십을 원했던 여러 국가는 도하개발 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의 타결실패로 양국 간 FTA 협정추진을 각국이 경쟁하듯이 확대하였다. 양국 간의 FTA 시대를 거쳐 최근에는 다자간 협

정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거대 지역무역협정이나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 수준에서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보호와 개방이라는 기초를 유지하면서 그럴듯한 전략이 되었다. 그런데도 국가마다 차별화된 경제이익과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다양한 수준의 경제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국가에서의 FTA 협상의 참여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경제적 주권과 국가경제개발을 추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같은 상황에 부딪혀 있다(Chen, 2016).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과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egional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Research Fund(CKURF-201601950001).

\*\* Assistant Professor, Business Administr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Korea.  
Tel: +82-1-6352-3988, E-mail: mskim@cku.ac.kr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국가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을 횡단하는 대규모 지역협상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무역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Petri, 2013). ASEAN은 잠재력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하고 있지만, 무역구조가 유사성과 기술 및 자본의 한계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이 절실하며, 한국과 일본 역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해외생산과 직접투자 등의 시장 확대를 위해 ASEAN 지역을 필요로 한다(Yi, 2004).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6년 4월 정식 협상타결을 통해 발족하기로 했던 TPP는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선언 이후 협정이 가지는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다. 세계 총생산의 37.5%에 달했던 TPP 경제 규모는 미국의 탈퇴로 12.9%로 줄어들었고, 참가국 인구도 11.3%에서 6.9%로 축소되었다. 전체 교역량도 25.7%에서 14.9%로 줄어들었다. TPP의 축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RCEP가 반사효과를 누리며 올해 타결을 기대했지만, 참여국들은 상품 최종공동 양허 목표와 서비스·투자 자유화 기준, 전자상거래 관련 규칙의 정비, 참가국의 경제발전 차이, 관세철폐 범위 문제 등으로 2018년 이후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미국주도의 TPP 가입이나 중국주도의 RCEP 참여는 일단 미국의 TPP 탈퇴로 우선순위는 가려진 듯 하나 중국과의 미묘한 정치적 관계가 경제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RCEP 협정 틀 안에서 역할도 중요해 졌다. 16개 참여국의 경제적 격차가 크고, 경제발전 정도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중간국가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RCEP 협정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등 ASEAN 10개 국가와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주변 3개국 등 총 16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무역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각국의 무역구조를 알아본다. 한 국가의 수출입이 다른 나라에 어떻게 영

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국제무역계수들의 비교를 통해 RCEP 협정 체결 시 무역 관련 기준을 정하는데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RCEP 현황 및 쟁점사항

RCEP 협상의 시작은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2000년대 중국이 제안한 동아시아자유무역지역(East Asia Free Trade Area; EAFTA)과 일본이 제안한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CEPEA)이다. 2011년 ASEAN 정상회담 시 ASEAN과 FTA 협정을 체결한 6개국이 참여하는 RCEP 작업계획을 제시하였다. 2012년 ASEAN+6 통상 장관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새로운 협상시작의 시점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했고, RCEP 참여국 정상들 간 공동으로 RCEP 협상 개시선언을 했다. ASEAN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그들의 자원에 의존해서는 안 됨을 알고 있었다(Hasrat & Nasrudin, 2016). 협상 항목은 8가지로 WTO 협정의 일관성 확보, 이미 논의되었던 ASEAN+1보다는 개선된 협정, 무역과 투자 투명성 확보, 개발도상국 유연성 및 특별우대조치를 포함, 참여국들의 이미 체결 FTA의 지속, 추가 참여 조항, 개발도상국에게 기술협조와 상품·서비스·투자, 다른 분야들도 함께 협상하는 것들이다. 16개국의 경제발전 차이와 개방에 대한 의견 차이, 교역구조의 유사성 때문에 20차례 공식 협상과 9차례 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협상타결을 2017년으로 미루었다. TPP 협상의 교착상태 이후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타결을 추진하고 있는 거대 FTA이다. 2016년 기준 한국과 RCEP 참여국과 교역액은 <Table 1>과 같이 4,429억 달러로 전체교역액 901억 달러의 약 49.13%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1> 2016 year Trade scale with Korea's RCEP countries

	2016 year				
	Export amount	Export growth rate	Import amount	Import growth rate	Trading
	<b>495,426</b>	<b>-5.9</b>	<b>406,193</b>	<b>-6.9</b>	<b>901,619</b>
China	124,433	-9.3	86,980	-3.6	211,413
Japan	24,355	-4.8	47,467	3.5	71,822
India	11,596	-3.6	4,189	-1.2	15,785
Australia	7,501	-30.7	15,176	-7.7	22,677
New Zealand	1,305	3.4	1,098	-10.3	2,403
Indonesia	6,609	-16.1	8,285	-5.4	14,894
Philippines	7,278	-12.5	3,229	-0.7	10,507
Malaysia	7,533	-2.6	7,508	-12.8	15,041
Cambodia	573	-12.2	240	10.7	813
Singapore	12,459	-17.0	6,806	-14.3	19,265
Thailand	6,482	1.9	4,563	-6.0	11,045
Laos	126	-25.8	23	-20.0	149
Vietnam	32,630	17.5	12,495	27.4	45,125
Brunei	67	-75.5	712	-26.4	779
Burma	761	15.3	459	-9.3	1,220
Total RCEP	243,708		199,230		442,938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net

미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국인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수출입 증가율이 가장 큰 나라는 수출 17.5%, 수입 27.4%인 베트남이다.

다른 FTA 협상과 마찬가지로 RCEP 협상에서도 3가지 중요한 부분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협정이다. 3개 부분의 개방의 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사안인데 올해 타결에 실패한 원인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중국은 RCEP 협정을 이용하여 투자와 무역 자유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무역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서비스와 투자협정 부문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였고, 일본은 TPP 협상타결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RCEP 협상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ASEAN은 내부적인 합의를 거친 후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내부합의의 지연으로 전체 협상을 지연하는 결과를 보였다. 협상에서 가장 의견 차이를 보이는 국가는 인도이다. 인도는 RCEP 협정을 통해 FTA 미체결국가인 일본, 뉴질랜드와 협정체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협상 초기부터 상품 분야에는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차등화된 개방을 요구하고, 무역자유화 방식에는 그룹별로 다른 관세 인하율을 제시하여 다른 국가들과 큰 견해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RCEP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미 체결된 FTA 국가들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만들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억제하면서 비관세장벽과 무역 관련 애로사항들을 다차적으로 해결하여 FTA 체결에 따른 활용도를 높일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 2.2. 선행연구 고찰

Kim and Wee(2010)는 동북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역내 무역구조를 산업 내 무역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품목과 기술 수준별로 분석하고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북아시아 3국의 상호보완적 무역 구조는 긴밀해지고 있으나,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증가하고, 무역흑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Kang(2014)은 RCEP와 TPP의 부조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비용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하에 RCEP 협상에서는 관세 철폐와 무역투자규범의 평균적인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고 TPP 협상은 중국과 ASEAN 모든 국가의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Yi(2004)는 동아시아국가들의 무역연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동북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들 모든 동아시아 지역에 높은 무역 유발효과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동북아시아 각국은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음을 밝혀냈다. 일본 무역승수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주장했으며, 한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국제무역승수는 일본과 중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Shim(2012)은 국제무역 유발계수 값이 가장 큰 지역은 2000년대 전반부에는 EU, 2010년에는 동북아시아였으며, 해당 지역의 역내무역이 한 단위 증대가 세계 경제 전체에 국제무역을 크게 유발함을 밝혔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역내무역을 구조적으로 여타 지역과의 무역에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 경제의 특성상 배타성이나 차별성보다는 개방된 지역경제의 운영 특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Devadason(2015)은 RCEP 하에서 중국의 외부 선택 사항

이 말레이시아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자 간 무역 잠재력이 도출하였다. 3차원 패널 중력 모델을 통해 추정된 중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무역 확대 잠재력은 ASEAN과 비교하여 RCEP 구조 하에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국은 전략적 제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양자 간 협력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tri(2013)는 RCEP와 TPP 두 개 모형을 모형화 결과 두 협상 모두 한국과 세계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 일본 및 소규모 경제와의 새로운 FTA를 수립하고, 지역별 누적 투입을 허용함으로써 자유 무역 협정의 이용을 향상하며, 기존 한국의 기체결 FTA 협정을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Cheong and Cho(2013)는 대규모 무역 블록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중첩되는 FTA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아시아는 지역 차원의 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력을 창출하려고 노력했지만, 대부분의 정책중복과 다양한 경제 격차가 존재하여 지역 경제 통합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Chiang(2013)은 중국, 일본, 한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최근의 주도권에 대한 경제적 계산을 탐구하고 향후 지역 경제 통합에 대한 함의를 밝혔다. 첫째, 제안된 3자 간 FTA는 중국 중심의 지역 경제 통합의 진보를 의미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 경제 통합은 또한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한국과 일본 정부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에 더 많은 관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악화,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일본은 한·중·일 FTA와 TPP회원국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이 주도하는 RCEP와 미국주도 TPP가 많은 수의 국가들 때문에 성과를 거두는 데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Park and Moon(2013)은 우리나라는 수입부문에 특화지수가 마이너스 지수를 보였으며 2008년 기점으로 중국은 무역특화지수가 개선됨을 밝혔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독일, 일본이 경쟁력이 높게 나왔고 중국도 2009년 이후 1 이상의 지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품목별 현시비교우위지수에서는 자원관용 품목이 2009년부터 국제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밝혔으며,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 지수도 높게 나타났다.

## 3. 연구 방법론

### 3.1.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RCEP 협정에 참여하는 16개국 간의 무역구조와 무역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 매트릭스를 설정하여 분석한다. 국가 간에 국제무역연관분석을 위해 레온티에프(Leontief) 교수의 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을 무역 균형식과 역행렬을 이용하여 RCEP 참여국 중 어떤 국가의 수출이 다른 국가에 피드백 되는지 분석을 한다(Park et al., 2007; Yi, 2004; Sim, 2012). 무역 매트릭스 분석은 개별국가의 역내시장 의존도 및 가맹국 상호 간의 시장 의존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이것은 역내국간의 수출입을 행과 열로 배열하여 각국의 총수출 및 총수입에 대한 특정 상

대국과 무역 비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역내 국가별 수출 및 수입의존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Yi, 2004).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의 국제교역구조와 교역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 간의 무역 균형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Park et al., 2007).

$$\begin{aligned} X_{11} + X_{12} + \dots + X_{1n} + EX_1 &= X_1 \\ X_{21} + X_{22} + \dots + X_{2n} + EX_2 &= X_2 \\ &\vdots \\ X_{n1} + X_{n2} + \dots + X_{nn} + EX_n &= X_n \end{aligned} \tag{식1}$$

$X_i$ 는  $i$  국가의 세계에 대한 총 수출액,  $X_{ij}$ 는 역내  $i$  국가로부터 역내  $j$  국가로의 수출액을 나타내며  $EX_i$ 는 RCEP 국가의 RCEP 지역 이외의 역외 국가들로의 수출액을 나타낸다. 교역계수( $t_{ij}$ )를  $(X_{ij}/X_i)=t_{ij}(i \neq j)$ 로 정의하면, 이것은  $j$  지역에서  $j$  지역 국가로 수출되는 수출액을  $j$  국가의 총 수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교역계수( $t_{ij}$ )를 대입하여 위의 무역 균형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Park et al., 2007).

$$\begin{aligned} (1-t_{11})X_1 - t_{12}X_2 \dots - t_{1n}X_n &= EX_1 \\ -t_{21}X_1 + (1-t_{22})X_2 \dots - t_{2n}X_n &= EX_2 \\ &\vdots \\ -t_{n1}X_1 + (1-t_{n2})X_2 \dots (1-t_{nn})X_n &= EX_n \end{aligned} \tag{식2}$$

여기서 교역계수 ( $t_{ij}$ )의  $n \times n$  차원의 매트릭스를  $T$ 라고 표시하고(단  $t_{ij}=0$ ),  $X$ 를  $n \times n$  차원의 수출매트릭스,  $i$ 는  $n$ 차원의 항등행렬,  $EX$ 를  $n \times 1$  차원의 역내국가가 역외 지역 국가로의 수출벡터 라고하면, 위의 무역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된다.

$$(I - T) X = EX \tag{식3}$$

$(I-T)X = EX$  따라서  $X = (I-T)^{-1}EX$ 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역내 지역의 어느 한 국가로부터 역외 지역 국가로의 수출을 외생변수로 생각하여 이것이 내생변수인 역내 지역 국가의 총 수출에 직접 및 간접으로 피드백 되는 파급효과를 구할 수 있다. 한편  $(I-T)^{-1}$ 의 각 원소를  $a_{ij}$ 라고 하면  $a_{ij}$ 는 역내 지역의 어

느 한 국가로부터 역외 지역 국가로 수출을 외생적으로 1단위 증가시킬 때, 역내 지역의  $i$  국가의 수출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 즉, 국가 간 무역유발계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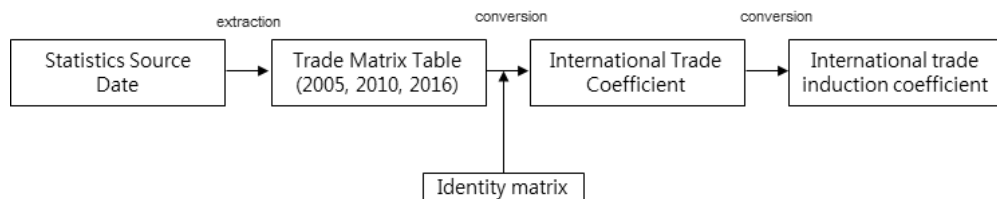
$$\left(\sum_i a_{i1}\right)EX_1 + \left(\sum_i a_{i2}\right)EX_2 \dots + \left(\sum_i a_{im}\right)EX_n = \sum_i X_i \tag{식4}$$

일국의 총무역량의 증가율이 특정 교역상대국과의 쌍방 간 교역량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경우 위의 분석만으로는 이러한 당사국 간 교역의 상호의존성 변화를 정확히 관찰할 수 없게 된다(Park et al., 2007). 따라서 각국의 총무역 벡터에 대한 해당국가간의 무역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 간의 무역 결속도를 별도로 구할 필요가 있다(Shon, 1997). 수출결합도( $x$ )는  $i$  국가에서  $j$  국으로의 수출을  $i$  국의 총수출로 나눈 값을 분자로  $j$ 국으로의 세계 총수출을 세계 전체의 총수출로 나눈 값을 분모로 나눈 값이다. 무역결합도는 일국의 총무역액에 대한 상대국과의 무역 비중을 구하고 이것을 다시 세계 총 무역에 대한 상대국의 무역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다(Sim, 2012). 따라서 이는 자국의 총 무역에 대한 특정 상대국과의 무역비중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대한 상대국의 비중을 동시에 감안하는 지표가 됨으로써 세계시장 내에서 특정국 간에 맺어지는 무역의 상호의존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Shon, 1997). 아래 식(3)에서 수출 결합도의 값이 1이라면 이것은 자국의 총 무역에 대한 상대국으로의 수출 비중과 세계 총 무역에 대한 상대국의 수입 비중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값이 양국 간 무역의 결합 관계를 비교하는 기준치가 된다(Park et al., 2007). 즉,  $X$ 가 1보다 크면 결합 관계가 높고  $X$ 가 1보다 작으면 상호 간 결합 관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text{수출결합도}(X) = \frac{X_{ij} / X_j}{X_i} \tag{식5}$$

### 3.2.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사용한 통계자료는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로, 2005년부터 2016년도까지 RCEP 16개 협상국의 수출입 통계자료와 같은 연도 그 외 국가의 통계자료를 합하여 세계 총무역량을 추출하여 무역매트릭스 표를 만들었다. 무역매트릭스 표에 항등행렬을 곱하여 국제무역계수로 변환을 하고 다시 그 자료에서 국제무역 유발계수를 구하였다. 수출결합도는 한국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15개국으로의 수출과 그 나라들의 총수입 등을 구하여 추가로 계산을 하였다.



<Figure 1> The Research Framework

### 4. 연구 결과

#### 4.1. RCEP 참여국의 국제무역 매트릭스 분석

한국과 RCEP 협상국들과의 무역구조를 보면 한국은 2016년 증가세가 둔화하였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았으며, 2016년도에는 전통적인 수출국이었던 일본 이외에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은 베트남과 수교이후 2000년대 대부분 의류와 섬유 등 국내 기업들이 임금과 물가 인상으로 인한 한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을 우회수출지기로 활용하여 노동집약산업이 진출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 자본과 기술 집약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졌다. 특히 한국 전기·전자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RCEP 협상 타결 후 베트남 수출은 한층 더 증가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 한국 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였으며, 다른 RCEP 협상국 중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게 중국은 아직도 제1의 수출입 상대국이지만 2010년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수출입물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중간재 중에서 부품과 부분품의 수출비중이 중국으로의 투자환경에 따라 증가하고, 석유제품,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 등의 반제품 수출 비중은 현시대체를 확대가 감소요인이다. 일본은 중국, 한국 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였으며, 2010년에 비해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Table 2> 2005, 2010, 2016 year international trading matrix

	Year	Korea	China	Japan	India	Australia	New Zealand	Indonesia	Philippines	Malaysia	Cambodia	Singapore	Thailand	Laos	Vietnam	Brunei	Burma
Korea	2016	-	57,303	10,978	5,535	3,735	678	3,377	3,564	3,429	291	6,995	3,020	68	13,104	251	354
	2010	-	1688	28,176	11,435	6,642	918	8,897	5,838	6,115	333	15,244	6,460	112	9,652	65	479
	2005	-	61,915	24,027	4,598	3,812	670	5,046	3,220	4,608	144	7,407	3,381	14	3,432	61	120
China	2016	49,675	-	64,632	25,269	18,846	2,425	14,664	11,975	16,811	1,752	20,207	18,393	529	26,643	617	3,765
	2010	68,811	-	120,262	40,880	27,228	2,764	21,973	11,564	23,817	1,347	32,333	19,755	476	23,121	53	3,481
	2005	35,117	-	84,097	8,937	11,065	1,354	8,369	4,689	10,618	536	16,716	7,819	105	5,639	13	935
Japan	2016	21,644	52,831	-	3,937	6,522	965	5,256	4,959	5,935	136	9,645	13,084	50	6,115	49	497
	2010	62,270	149,626	-	9,052	15,869	1,898	15,918	11,053	17,637	158	25,226	34,222	62	8,178	50	264
	2005	46,678	80,005	-	3,524	12,513	2,440	9,332	9,154	12,624	79	18,529	22,563	19	3,590	105	92
India	2016	1,882	4,366	2,112	-	1,618	167	1,308	624	1,587	66	2,663	1,226	19	1,853	16	481
	2010	3,641	17,519	4,813	-	1,653	189	4,572	804	3,551	61	9,094	2,145	8	2,485	21	273
	2005	1,631	6,473	2,393	-	796	130	1,368	474	1,142	23	5,069	1,032	5	657	33	111
Australia	2016	5,858	28,195	11,465	2,991	-	1	1,886	0	14	18	1,947	1,192	8	1,371	15	3
	2010	18,840	53,111	40,075	15,029	-	7,365	4,117	1,144	3,347	23	4,445	5,333	23	1,404	31	76
	2005	8,252	12,075	21,305	5,266	-	6,822	2,757	635	635	1,915	36	3,044	18	509	23	31
New Zealand	2016	550	3,020	1,093	205	2,693	-	298	212	283	4	476	283	0	172	2	13
	2010	1,018	3,498	2,437	650	7,241	-	670	527	558	4	595	493	1	304	3	12
	2005	769	1,104	2,301	166	4,657	-	328	355	331	1	306	238	0	108	2	2
Indonesia	2016	4,002	7,028	8,069	5,300	1,728	191	-	1,713	3,272	203	6,108	2,623	3	1,100	51	212
	2010	12,575	15,693	25,782	9,915	4,244	396	-	3,181	9,362	218	13,723	4,567	6	1,946	61	284
	2005	7,086	6,662	18,049	2,878	2,228	275	-	1,419	3,431	94	7,837	2,246	2	678	39	78
Philippines	2016	1,465	3,906	4,274	200	260	39	271	-	626	3	2,008	1,164	13	305	5	20
	2010	2,228	5,702	7,827	410	349	33	449	-	1,396	8	7,331	1,784	0	571	6	11
	2005	1,391	4,077	7,203	86	455	39	476	-	2,457	8	2,706	1,169	1	312	9	9
Malaysia	2016	2,788	10,645	7,592	3,722	3,266	353	3,334	1,588	-	147	13,355	5,092	10	2,521	301	411
	2010	7,555	24,912	20,782	6,517	7,472	929	5,616	3,106	-	198	26,544	10,587	14	3,548	451	366
	2005	4,737	9,303	13,181	3,955	4,766	538	3,322	1,974	-	109	22,010	7,585	6	1,160	353	246
Cambodia	2016	106	292	520	16	56	6	8	5	60	-	918	522	0	238	0	0
	2010	24	65	90	8	22	2	4	3	19	-	429	149	1	96	0	0
	2005	2	14	63	0	5	0	1	2	9	-	70	15	0	46	0	0
Singapore	2016	7,347	19,756	7,278	4,948	4,442	681	12,381	3,114	17,480	414	-	6,525	23	5,518	365	1,191
	2010	14,388	36,496	16,412	13,341	12,585	1,717	33,091	7,174	41,913	2,215	-	12,702	23	7,387	946	1,156
	2005	8,053	19,752	12,536	5,897	8,429	1,164	22,109	4,185	30,405	303	-	9,431	40	4,421	496	596
Thailand	2016	1,887	10,492	10,119	2,629	5,094	665	4,092	3,129	4,813	2,082	4,231	-	2,017	4,176	37	2,124
	2010	3,608	21,479	20,317	4,395	9,372	800	7,347	4,888	10,569	2,340	9,003	-	2,135	5,846	129	2,073
	2005	2,244	9,105	14,979	1,520	3,151	518	3,953	2,042	5,781	913	7,641	-	769	2,348	68	707
Laos	2016	16	501	57	79	3	2	0	0	6	2	3	773	-	308	0	0
	2010	18	511	34	18	2	0	1	0	2	1	3	690	-	265	0	0
	2005	2	23	7	0	7	0	0	0	12	0	1	204	-	89	0	0
Vietnam	2016	4,631	9,544	6,955	1,046	1,619	194	1,325	506	1,753	1,128	1,333	2,004	202	-	23	146
	2010	3,092	7,309	7,728	992	2,704	123	1,433	1,706	2,093	1,552	2,121	1,183	198	-	14	50
	2005	664	3,228	4,340	98	2,723	48	469	829	1,028	556	1,917	863	59	-	0	12
Brunei	2016	457	41	855	251	80	93	3	2	100	0	36	295	0	60	-	0
	2010	1,383	581	3,732	189	979	415	606	2	43	0	118	90	0	9	-	0
	2005	715	189	2,074	1	524	67	1,089	1	12	0	135	184	0	0	-	0
Burma	2016	204	1,595	390	438	10	1	50	12	91	0	41	1,120	0	51	0	-
	2010	145	874	353	1,019	14	1	29	13	207	0	75	2,590	0	93	0	-
	2005	51	249	185	451	11	1	13	1	122	0	99	1,623	0	42	0	-

인도의 무역 구조도 싱가포르의 비중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반면, 한-중-일 외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인도는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내수산업이 확대되는 반면, 제조업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서비스 편향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제조업 산업구조는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ASEAN 국가들보다는 동북아시아 3국과의 무역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여전히 인도경제에서 수출이 총생산의 증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른 개도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도경제는 수출보다는 내수에 더욱 많이 의존하는 구조이다(Hsu, 2013).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로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싱가포르, 태국과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라오스와 미얀마는 태국으로는 수출이 가장 높는데 이는

지리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며, 브루나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최대 수출국이 바뀌었다.

4.2. RECP 참여국의 국제무역 매트릭스 분석

국제무역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유발계수를 구하면 국가 간의 교역 관계를 알 수 있다. 즉 어느 한 국가의 무역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세계 전체에 주는 효과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국제무역유발계수가 크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무역이 세계무역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무역유발계수가 작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무역량이 적으며 무역구조가 자급자족적인 무역구조로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Park et al., 2007).

**Table 3>** 2005, 2010, 2016 year international trading factor

	Year	Korea	China	Japan	India	Australia	New Zealand	Indonesia	Philippines	Malaysia	Cambodia	Singapore	Thailand	Laos	Vietnam	Brunei	Burma
Korea	2016	0.990	-0.013	-0.039	-0.033	-0.037	-0.036	-0.038	0.035	-0.046	-0.037	-0.034	-0.053	-0.087	0.088	0.024	-0.048
	2010	0.991	0.004	-0.035	-0.023	-0.045	-0.057	-0.024	0.034	-0.050	-0.021	-0.031	-0.046	-0.058	0.066	-0.069	-0.015
	2005	0.995	0.022	-0.020	-0.018	-0.055	-0.053	-0.013	0.013	-0.037	-0.055	-0.033	-0.040	-0.086	0.044	-0.058	-0.046
China	2016	0.201	0.910	0.008	-0.004	0.011	-0.066	-0.014	0.214	-0.038	0.051	-0.077	-0.025	0.032	0.143	0.047	0.540
	2010	0.138	0.956	0.003	0.031	-0.032	-0.082	-0.025	0.079	-0.047	0.109	-0.062	-0.050	0.038	0.196	-0.167	0.389
	2005	0.126	1.000	0.035	-0.020	0.008	-0.049	-0.021	0.013	-0.045	0.081	-0.042	-0.039	-0.001	0.076	-0.128	0.127
Japan	2016	0.084	-0.029	1.014	-0.063	-0.013	-0.032	-0.020	0.082	-0.029	-0.068	-0.028	0.040	-0.031	-0.007	-0.078	0.003
	2010	0.132	0.000	1.001	-0.066	-0.028	-0.053	-0.001	0.142	-0.015	-0.040	-0.028	0.082	0.015	0.036	-0.097	-0.040
	2005	0.165	0.006	0.998	-0.077	0.015	0.010	0.002	0.137	-0.019	-0.041	-0.028	0.104	0.031	0.021	-0.106	-0.088
India	2016	-0.012	-0.041	-0.050	1.053	-0.042	-0.043	-0.046	-0.061	-0.045	-0.069	-0.039	-0.050	-0.099	-0.043	-0.060	-0.008
	2010	-0.009	-0.036	-0.047	1.052	-0.048	-0.057	-0.029	-0.059	-0.040	-0.084	-0.025	-0.048	-0.102	-0.031	-0.044	-0.041
	2005	-0.011	-0.034	-0.043	1.061	-0.088	-0.070	-0.039	-0.047	-0.042	-0.123	-0.023	-0.046	-0.094	-0.035	-0.034	-0.032
Australia	2016	0.016	-0.013	-0.010	-0.025	1.053	-0.051	-0.030	-0.066	-0.059	-0.068	-0.041	-0.044	-0.093	-0.036	-0.055	-0.096
	2010	0.033	-0.023	-0.009	0.006	1.045	0.203	-0.050	-0.058	-0.062	-0.126	-0.057	-0.042	-0.104	-0.057	-0.068	-0.090
	2005	0.003	-0.069	-0.055	-0.038	1.012	0.254	-0.092	-0.104	-0.113	0.556	-0.104	-0.085	-0.175	-0.105	-0.090	-0.143
New Zealand	2016	-0.017	-0.033	-0.042	-0.045	-0.015	1.066	-0.052	-0.065	-0.052	-0.070	-0.045	-0.051	-0.100	-0.056	-0.057	-0.110
	2010	-0.014	-0.037	-0.041	-0.045	-0.008	1.066	-0.053	-0.060	-0.054	-0.108	-0.046	-0.050	-0.101	-0.063	-0.040	-0.087
	2005	-0.014	-0.038	-0.039	-0.044	-0.032	1.056	-0.055	-0.050	-0.051	-0.099	-0.046	-0.052	-0.108	-0.056	-0.039	-0.071
Indonesia	2016	-0.001	-0.045	-0.034	-0.015	-0.046	-0.048	1.041	-0.017	-0.026	-0.052	-0.017	-0.039	-0.106	-0.057	-0.045	-0.069
	2010	0.014	-0.046	-0.026	-0.017	-0.044	-0.058	1.040	-0.008	-0.014	-0.061	-0.017	-0.040	-0.109	-0.047	-0.048	-0.049
	2005	0.014	-0.044	-0.025	-0.025	-0.013	-0.049	1.042	-0.029	-0.036	-0.059	-0.022	-0.042	-0.111	-0.045	-0.048	-0.060
Philippines	2016	-0.012	-0.034	-0.033	-0.047	-0.051	-0.043	-0.053	1.039	-0.047	-0.069	-0.034	-0.041	-0.085	-0.054	-0.056	-0.102
	2010	-0.011	-0.037	-0.035	-0.050	-0.048	-0.055	-0.052	1.042	-0.045	-0.093	-0.024	-0.042	-0.094	-0.056	-0.039	-0.082
	2005	-0.010	-0.040	-0.036	-0.050	0.011	-0.045	-0.058	1.045	-0.039	-0.072	-0.041	-0.047	-0.108	-0.054	-0.045	-0.075
Malaysia	2016	-0.008	-0.054	-0.049	-0.043	-0.039	-0.049	-0.025	-0.037	1.036	-0.070	0.020	-0.025	-0.103	-0.052	0.066	-0.030
	2010	0.001	-0.050	-0.044	-0.044	-0.035	-0.045	-0.034	-0.020	1.036	-0.050	0.012	-0.016	-0.089	-0.032	0.001	-0.036
	2005	0.000	-0.058	-0.052	-0.028	-0.044	-0.062	-0.026	-0.030	1.041	-0.074	0.033	-0.002	-0.073	-0.040	0.008	-0.003
Cambodia	2016	-0.008	-0.035	-0.044	-0.046	-0.051	-0.042	-0.055	-0.071	-0.052	1.043	-0.040	-0.047	-0.094	-0.052	-0.056	-0.109
	2010	-0.018	-0.037	-0.042	-0.047	-0.046	-0.051	-0.054	-0.070	-0.053	1.008	-0.043	-0.049	-0.096	-0.063	-0.036	-0.085
	2005	-0.017	-0.042	-0.045	-0.046	0.018	-0.041	-0.063	-0.065	-0.058	1.040	-0.051	-0.058	-0.117	-0.063	-0.042	-0.077
Singapore	2016	-0.010	-0.070	-0.076	-0.056	-0.052	-0.057	0.082	-0.009	0.104	-0.057	1.018	-0.035	-0.138	-0.044	0.074	0.106
	2010	0.006	-0.089	-0.094	-0.057	-0.058	-0.070	0.103	0.011	0.109	0.284	1.000	-0.053	-0.177	-0.030	0.027	0.027
	2005	0.009	-0.079	-0.085	-0.038	-0.087	-0.081	0.173	-0.006	0.131	-0.055	1.015	-0.018	-0.073	0.033	0.006	0.064
Thailand	2016	-0.019	-0.106	-0.109	-0.123	-0.095	-0.097	-0.109	-0.091	-0.109	0.142	-0.115	0.960	0.856	-0.112	-0.158	0.190
	2010	-0.040	-0.112	-0.112	-0.133	-0.102	-0.133	-0.123	-0.101	-0.110	0.216	-0.117	0.956	0.887	-0.100	-0.109	0.122
	2005	-0.035	-0.115	-0.109	-0.121	0.007	-0.111	-0.125	-0.123	-0.116	0.152	-0.111	0.949	0.980	-0.092	-0.114	0.013
Laos	2016	-0.008	-0.035	-0.046	-0.045	-0.052	-0.042	-0.056	-0.072	-0.054	-0.066	-0.047	-0.044	1.020	-0.051	-0.056	-0.109
	2010	-0.018	-0.037	-0.043	-0.048	-0.046	-0.051	-0.055	-0.070	-0.054	-0.102	-0.045	-0.046	1.017	-0.060	-0.037	-0.085
	2005	-0.018	-0.042	-0.045	-0.046	0.018	-0.041	-0.064	-0.065	-0.058	-0.071	-0.052	-0.056	0.996	-0.061	-0.042	-0.078

	Year	Korea	China	Japan	India	Australia	New Zealand	Indonesia	Philippines	Malaysia	Cambodia	Singapore	Thailand	Laos	Vietnam	Brunei	Burma
Vietnam	2016	-0.007	-0.043	-0.040	-0.058	-0.051	-0.050	-0.058	-0.075	-0.054	0.098	-0.056	-0.050	-0.005	1.033	-0.068	-0.106
	2010	-0.017	-0.051	-0.053	-0.066	-0.054	-0.071	-0.071	-0.060	-0.067	0.192	-0.060	-0.067	-0.029	1.017	-0.055	-0.115
	2005	-0.019	-0.051	-0.052	-0.061	-0.007	-0.062	-0.075	-0.058	-0.065	0.117	-0.057	-0.066	-0.042	1.030	-0.056	-0.094
Brunei	2016	-0.007	-0.035	-0.043	-0.043	-0.050	-0.036	-0.056	-0.071	-0.052	-0.069	-0.046	-0.049	-0.096	-0.055	1.055	-0.111
	2010	-0.014	-0.037	-0.038	-0.047	-0.041	-0.035	-0.051	-0.070	-0.054	-0.107	-0.045	-0.050	-0.099	-0.065	1.073	-0.087
	2005	-0.016	-0.047	-0.047	-0.051	0.014	-0.044	-0.056	-0.072	-0.065	-0.083	-0.057	-0.061	-0.127	-0.071	1.063	0.037
Burma	2016	-0.007	-0.034	-0.045	-0.042	-0.052	-0.043	-0.056	-0.071	-0.053	-0.067	-0.047	-0.041	-0.088	-0.055	-0.057	1.003
	2010	-0.018	-0.038	-0.043	-0.044	-0.047	-0.053	-0.056	-0.071	-0.054	-0.101	-0.046	-0.036	-0.085	-0.064	-0.038	1.028
	2005	-0.018	-0.043	-0.047	-0.042	0.018	-0.043	-0.065	-0.067	-0.059	-0.069	-0.053	-0.043	-0.101	-0.064	-0.044	1.034

<Table 4> 2005, 2010, 2016 year Index of intensity of trade

	China	Japan	India	Australia	New Zealand	Indonesia	Philippines	Malaysia	Cambodia	Singapore	Thailand	Laos	Vietnam	Brunei	Burma
2016	0.234	1.144	0.950	1.207	1.358	1.563	2.68	1.368	1.121	1.644	1.041	0.652	4.469	3.630	1.022
2010	0.245	1.314	1.055	1.012	0.968	2.123	3.139	1.202	2.201	1.587	1.130	1.000	3.748	0.660	1.559
2005	3.426	1.704	1.202	1.063	0.937	3.195	2.481	1.482	2.067	1.352	1.045	0.403	3.410	1.353	1.230

<Table 3>에서 세로줄은 국제무역의 영향을 주는 국가, 가로줄은 영향을 받는 국가로 되어 있다(Yi, 2004). 우리나라의 RCEP 협상 국가 국가무역유발계수는 2016년 중국(0.201), 일본(0.084), 호주(0.016) 순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향을 받는 국가로는 베트남(0.088), 브루나이(0.024)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호주는 이미 FTA 협상을 체결한 상태여서 결국 RCEP 협상 타결 후 일본과 어떠한 조건으로 새로운 자유무역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다. 일본은 TPP와 RCEP 협상 모두 참여하면서 거대 경제권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양자 간 FTA 협상 시 민감하게 처리했던 농산품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높은 수준의 개방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2016년 일본은 중국(0.008), 필리핀은 중국(0.214),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0.104), 캄보디아는 태국(0.142),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0.020), 태국은 인도(0.104), 라오스는 태국(0.856), 베트남은 한국(0.088) 등 국가에서 국제유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4.3. RECP 참여국과 한국의 수출결합도

<Table 4>는 한국과 RCEP 15개국의 수출결합도를 도출한 결과이다. 2005년에는 중국과의 수출결속도가 가장 높았으며 뉴질랜드와 경제 규모가 적은 라오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RCEP 협상국과 높은 수준의 결속관계를 보였다. 2010년은 중국의 결속도가 낮아지고, 베트남이 가장 높은 결속 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속 관계는 2016년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에는 중국, 인도, 라오스, 브루나이를 제외한 11개 국가와 결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아시아 지역의 거대 FTA 협상의 2개 축인 RCEP와 TPP 협정 중 미국의 협상 탈퇴 후 역동성이 떨어진

TPP의 반사이익으로 최근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RCEP 협상국의 무역구조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무역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유발계수를 도출하여 16개 국가 사이에 경제 결속력을 알아보고 협상 진행 중에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무역매트릭스 분석 결과, 기존 우리나라와 경제 관계가 심화되어 수출입 관련 주요국인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그 위치에 있었지만, 2005년보다는 그 수치들이 답보상태이거나 상승률이 낮아졌다. 대신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출입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한국이 베트남, 싱가포르와 무역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RCEP 참여국들과의 역내 무역이 중간재 위주의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음에서 기인한 것이며, 특히 베트남은 경제 성장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 직접투자자본을 끌어 모이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Nguyen et al., 2017).

둘째, 국제무역유발계수 분석 결과, 2005년 한국과 가장 무역유발계수가 높았던 국가는 일본(0.165)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인 근접성과 높은 무역의존도 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추월하였고, 2016년에는 중국이 가장 높은 유발계수(0.201)를 보였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연간 30% 이상 무역량이 증가했고(Gao, 2012), 무역 개방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Qazi et al., 2016). 한국은 첨단기술 분야, 중국은 노동 비용 및 노동력 기반으로 한 중저가 제품의 생산을 통해 이익을 얻었으며(Zhang & Lee, 2017), 최근 중국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한국 비중은 낮아지고 첨단산업관련 장비 수입이 일본으로부터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 보완적인 상생적인 차원의 교역구조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과 일본 외에는 호주의 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12월 한·호주 FTA 체결되면서 호주 농산물에 부과되던 관세 중 98%가 철폐되어 호주의 수출품 절반이 발효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부분의 ASEAN 국가들과 무역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호주는 중국과 이미 체결된 FTA 협정으로 교역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일본과의 국제무역유발계수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이 일찍이 동남아 국가들을

활용하여 일본기업의 공급체인 구축의 결과이다.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태국, 베트남과 국제무역 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국가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ASEAN 국가들 중 베트남을 제외하고 무역유발계수가 낮은 것은 ASEAN 국가들이 이미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역내무역을 확대하고 있는 점과 몇몇 국가들은 경제규모가 작아 유발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출결합도는 1보다 높으면 결합도의 높고, 1보다 적으면 결합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수출결합도 분석 결과, 2005년에는 중국(3.426)이 가장 높았고, 뉴질랜드, 라오스를 제외한 13개국 모두 1보다 높은 값을 보여 수출결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016년에는 중국, 인도, 라오스를 제외한 12개국 간의 수출결합도가 모두 1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2010년부터 중국의 수출결합도가 낮아진 이유는 수출결합도를 구하는 식에서 분모값으로 되어 있는 중국의 총수입이 세계 총수출보다 높은 성장을 보여 상대적으로 결합도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총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최근 경제외적인 요인과 중국경제의 산업 고도화로 주춤하고 있는 것도 수출결합도가 낮아진 이유일 것이다. ASEAN 국가들이 2005년보다 2016년 한국과의 수출결합도가 작아진 이유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수출과 각국의 총수입 부분의 값이 증가하여 나온 결과임을 추측할 수 있다.

##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RCEP 협정국가의 무역구조를 보면 경제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한·중·일 동북아 3국과 ASEAN 10국 기타 참여국의 국제무역 구조는 이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RCEP 협정과 TPP 협정에 동시 가입국만도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 7개국에 달한다. 인도, 뉴질랜드, 일본 3국만이 이미 체결된 FTA 협정이 없어 RCEP 타결 후 서로 간의 무역구조가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RCEP 협상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1개 이상의 FTA 협정을 맺고 있어 RCEP 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무역구조에 큰 변화는 증감은 예상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년 타결을 목표로 정해놓고 속도를 내고 있는 RCEP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체결된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협상의 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짧은 기간에 다차간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결하여 개방의 수준,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 수출 관련 기업들의 FTA 활용이 낮은 상황에서 RCEP 협상을 기존 FTA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 나라와 더 FTA 협상을 맺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아시아 국가와의 FTA를 정교하게 가다듬어 국제교역에 잘 이용해야 한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FTA 협상활용을 높여야 하며 비관세장벽, 통관, 서비스 개방 등 중국이 FTA 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과 동시에 원산지 증명에 대해 기준 일관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비중이 높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TPP 협상은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모호한 위치를 고수하다가 TPP 협상이 타결된 후 가입을 발표했지만, 만장일치로 추가 국가를 선정하는 방식 때문에 일본의 견제를 걱정해야 했다. RCEP 협정에서는 초기부터

참여하여 경제 격차가 큰 국가들 사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아시아국가 간 긍정적 경쟁과 정치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일본과의 경제 관계의 새로운 질서 모색이다. 양국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먼저 FTA 협상을 타결했어야 했지만, 경제 외적인 이유로 인하여 아직 양자 간 FTA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RCEP 협상의 넓어진 협상 틀 안에서 그동안 양국이 주장했던 민감한 품목과 사안들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어 향후 일본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무역구조를 분석하는 많은 틀 중에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무역매트릭스, 국제무역유발계수와 수출결합도 3가지 변수를 사용하였으나 이 외에도 국제무역승수와 국제무역의존도 계수 등 다양한 승수가 있다. 더 많은 승수와 변수들을 이용하여 무역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은 향후 연구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다. TPP에 대한 내용을 배제하고 작성한 점도 한계점이다. RCEP 협상은 TPP 협상과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혀 그 시사점을 제시한다면 새로운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학술적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사용한 통계 자료를 국내에서 발표한 자료만으로 작성한 점이다. 무역통계 자료는 국가마다 다르고, 수치가 다를 수 있어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추가하여 비교한 후 원 데이터로 사용하여 작성한다면 수치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의 한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Cheong, I. K., & Cho, J. G. (2013). The Evalua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from APEC to RCEP, *Journal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de*, 11(1), 99-112.
- Chen, Y. J. (2016). Asia Pacific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Competition vs. Conflict. *Contemporary Chinese Political Economy and Strategic Relations: An International Journal*, 2(1), 141-171.
- Chiang, M. H. (2013). The Potential of China-Japan-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30(3), 199-216.
- Chung, J. W. (2017). A Study on Reasonable PSR Standard against RCEP for Korea's Major Import and Export Goods.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18(3), 57-82.
- Devadason, E. S. (2015). Framing China-Malaysia Trade Relations Beyond ASEAN: Factoring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Th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49(2), 39-56.
- Gao, H. (2012). Study on Changes and Development Trends of the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2(1), 19-23.
- Hasrat, I. Z., & Nasrudin (2016). Determinants of Bilateral



-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ra-ASEAN: Panel Gravity Model. *The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6(1), 19-24.
- Hsu, K. (2013). The RCEP: Integrating India into the Asian Economy, *Indian Foreign Affairs Journal*, 8(1), 41-51.
- Kang, W. S. (2014). Mega-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Convergence of RCEP and TPP.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21(4), 25-30.
- Kim, Y. S., & Wee, J. B. (2010). Regional Trade Structure of the North-Eastern Asian Countries.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3(6), 3059-3081.
- Nguyen, T. D., Nguyen, A. T., & Do, P. T. T. (2017). The Role of Investment Attraction in Vietnamese Industrial Parks and Economic Zones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4(3), 27-34.
- Park, H. J., Jeon, H. G., & Kim, M. S. (2007). A Study on the Trade Structure among Korea and FTA Negotiating Countrie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1(2), 494-518.
- Park, B. J., & Moon, Y. S. (2013). A study on the Trade Structure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5(2), 345-364.
- Petri, P. A. (2013). The New Landscape of Trade Policy and Korea's Choices.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17(4), 333-359.
- Qazi, M. A., Hye, S. W., & Lau, W. Y. (2016). The Impact of Trade Openness on Economic Growth in China: An Empirical Analysis.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3(3), 27-37.
- Shim, S. J. (2012). Trade Multiplier in Inter-regional Trade and Factor Decomposition Analysis. *Journal of Korea Trade*, 37(3), 195-216.
- Shon, B. H. (1997). *Economic integration*(2th ed.). Seoul, Korea: Bobmunsa Publishing.
- Yi, C. D. (2004). 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Multipliers among East Asian Countries. *Korea Trade Review*, 29(5), 5-25.
- Zhang, M. L., & Lee, S. J. (2017). A Study of the Impacts on Electronic Distribution Industry after Korea-China FT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 8(6), 33-40.

